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경제 지표는 좋은데 미국인 불행 느끼는 이유?
- Bloomberg: 미 8월 무역적자 1천억 불 넘어…자본재 수입 최고
- WSJ: 시장은 여전히 연준의 눈치만 바라본다

[미국 금융]
- Bloomberg: 국채 금리 하락…유가 하락과 미 재무부 장관 발언에
- Bloomberg: Ray Dalio “중·일, 미 국채 매입 축소 가능성”
- Bloomberg: S&P 500 사상 최고치...유가 하락·AI 붐

[오일]
- WSJ: 중동 수출 회복에 브렌트유 $98 선으로 하락

[자동차 구매]
- CNBC: 소비자 부담…미 자동차 대출 기간 늘어

[보고서]
- JP 모건/IMF: "중국, 내수·소비 중심 신성장 모델 전환 시급"
- Harvard Biz Review: AI가 전략적 결정을 혁신하는 3가지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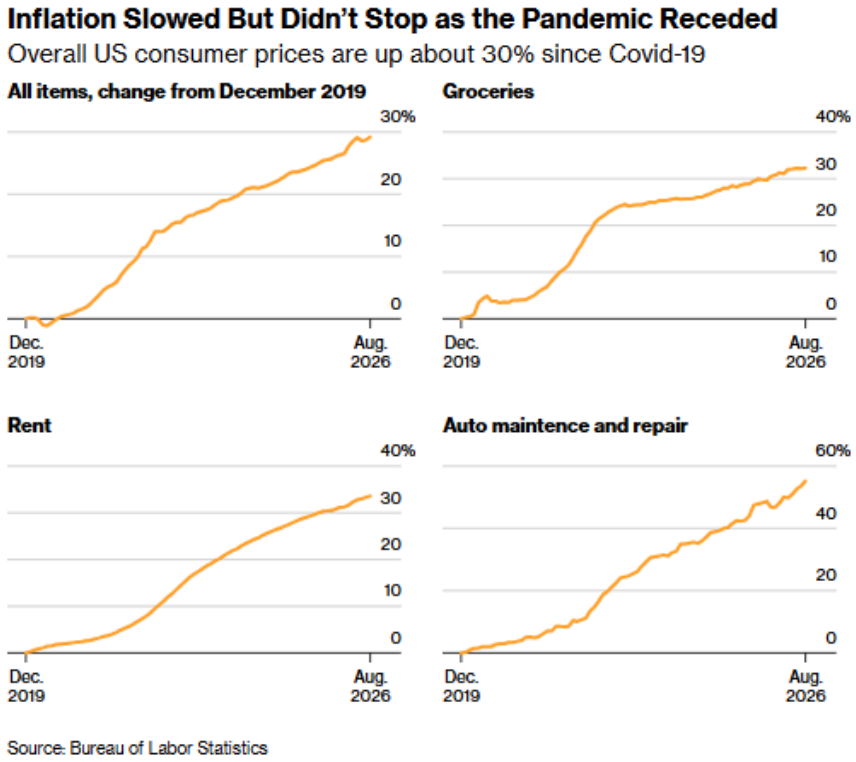
[오늘의 금융 지표]
- 미 증시 지수, 미국 국채 금리와 주요 환율

[미국 경제]

Bloomberg: Why Americans Are Unhappy With an Economy That Looks Strong
경제 지표는 좋은데 미국인 불행 느끼는 이유?

- 물가가 폭등하는데 2019년 대비해 물가가 30%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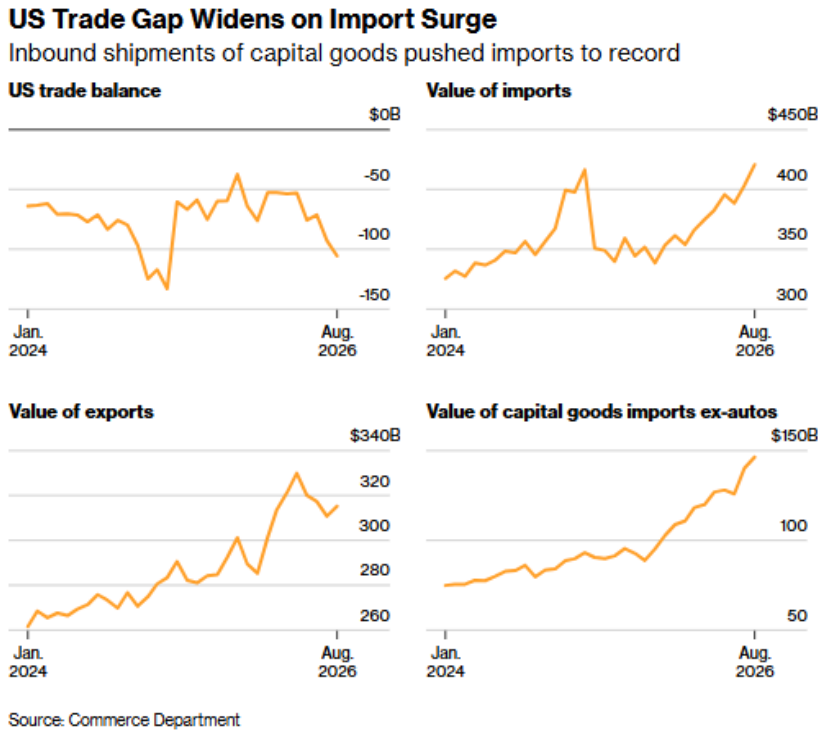
- 그리고 실질 소득은 감소해 임금 인상이 물가를 못 따라가 가계 저축이 고갈되어 가고 있다.
- 물론 해고는 적지만 신규 채용이 거의 중단되어 이직·청년 취업이 거의 막힌 상태라는 것.
- 여기다 주택 구매가 불가능할 정도인데 7%대 금리로 구매 비용 2배로 증가한 셈이다.
- 지정학·AI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데 중동 분쟁 원인으로 에너지값이 상승과 AI로 일자리가 소멸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있다.



기사

Bloomberg: US Trade Gap Widens to $105.6 Billion as Imports Hit Record
미 8월 무역적자 1천억 불 넘어…자본재 수입 최고

- 미국의 8월 무역수지 적자가 자본재 수입 급증의 여파로 1천56억 달러를 기록하며 2025년 초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 수출이 1.4% 증가에 그쳤지만, 자본재 수입이 전월 대비 62억 달러 급증하는 등 총수입이 4.3% 늘어 큰 폭의 적자가 발생했다. .
- 이번 무역적자 확대로 3분기 미국 GDP 성장률이 줄어들 전망이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GDPNow' 모델도 순 수출 감소로 3분기 성장률이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사

WSJ: Why Weaning Markets Off Fed Speak Is Harder Than It Sounds
시장은 여전히 연준의 눈치만 바라본다

- 연준 의장이 새로 취임한 이후 연준은 정책 힌트나 발언을 줄이고 시장이 스스로 경제 지표를 해석하길 바랐다. 그러나 연준이 조용하자 시장의 억측이 커지는 부

작용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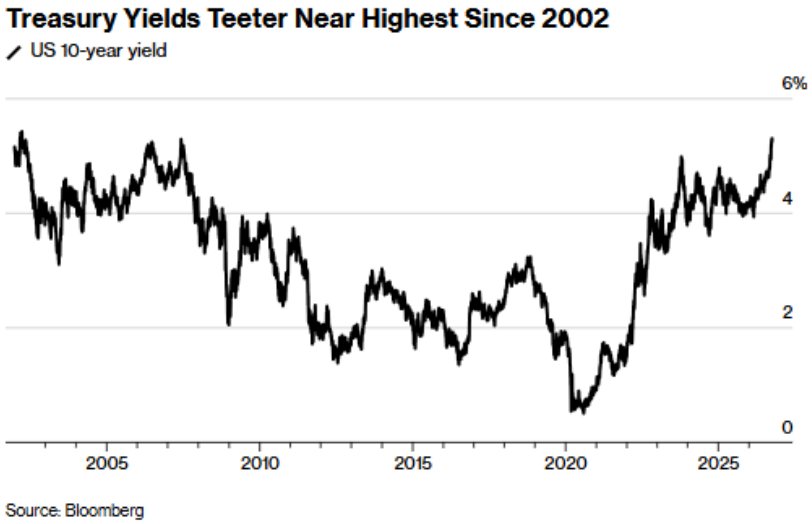
- 실제로 워시 의장의 발언 이후 시장에서는 10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70%까지 치솟게 보며 과도하게 반응했다. 결국 뉴욕 연은 총재 등 연준 핵심 인사들이 급히 나서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냈고 시장의 금리 인상 기대 가능성은 25% 이하로 크게 떨어졌다.
- 연준은 시장이 스스로 굴러가도록 섣부른 신호를 자제했지만 오히려 시장이 제멋대로 예측하다 과열되어 결국 연준이 다시 개입할 수밖에 없게 되는 한계가 보인다.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US Yields Fall From 2002 High as Oil Dips, Bessent Vows On Debt
국채 금리 하락…유가 하락과 미 재무부 장관 발언에

-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밑으로 내리고 연방 재무장관이 정부 부채 관리를 장담하면서 2002년 이후 최고치였던 미 국채 금리가 하락했다.
- 미-이란 전쟁발 물가 불안과 연준의 긴축 정책 우려로 치솟던 채권 금리가 안정세 조짐을 보이고 있다.
- 연방 재무장관은 지출 제한과 경제 성장으로 부채 증가세를 꺾겠다고 강조했다.
- 여기다 호르무즈의 오일 공급 완화 조짐으로 유가가 내리자 10년물 금리는 5.28%, 2년물 금리는 4.8%로 각각 2 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했다.



기사

Bloomberg: Ray Dalio Warns China, Japan May Pull Back From Treasuries
Ray Dalio "중·일, 미 국채 매입 축소 가능성"

- 저명한 투자자 Ray Dalio는 미 최대 해외 채권국인 중국과 일본의 매수세가 약해지면서 미 국채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또한 미국이 부채 위기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일부 대출자와 대출기업들은 이미 압박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 그는 미국이 전체 부채의 약 3분의 1을 외국 자본에 의존하는 상황이라는 것. 이에 따라 미국으로의 자금 유입이 줄어들면서 미국의 막대한 부채 부담이 국채 시장의 치명적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기사

Bloomberg: S&P500 Targets Record as AI Deals, Oil Buoy Mood
S&P 500 사상 최고치...유가 하락·AI 붐

- 유가 하락과 AI 붐에 힘입어 미 증시가 4일째 연속 상승하며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 오늘 목요일 S&P 500은 0.7%, 그리고 나스닥은 0.7% 상승해 거래 중이다.
- 브렌트유가 배럴당 $98로 내려앉아 인플레 우려가 줄었고 국채 금리도 하락세 조짐을 보이고 있다.
- 여기에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6조에 육박하고 AMD CEO가 향후 반도체 칩 수요가 높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AI 붐이 증시 상승을 이끌었다.
- 전문가들은 고금리와 중동 리스크 속에서도 기업들의 실적 견조해 증시를 받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

[오일]

WSJ: Oil Prices Fall as Middle East Exports Recover
중동 수출 회복에 브렌트유 $98 선으로 하락

- 호르무즈 우회로 확보 등 중동 산유국들의 원유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국제 유가가 하락했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2% 이상 떨어져 배럴당 약 $98를 기록했다.
- 우회 경로와 물류 조정을 통해 9월 말 일부 일일 수출량이 전쟁 이전 수준을 상회하는 등 공급 흐름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 다만 호르무즈 해협과 바브알만다브 해협 인근의 유조선 공격 등 지정학적 위험은 운송·보험 비용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

기사

[자동차]

CNBC: Car buyers are stretching loans to afford payments — it's a 'potential warning light,' analyst says
소비자 부담…미 자동차 대출 기간 늘어

- 미국 신차 구매자들이 치솟는 차량 가격과 높은 금리를 감당하지 못해 대출 기간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 자동차 정보업체 에드문즈Edmunds에 따르면, 지난 3분기 할부로 신차를 구매한 소비자의 25% 이상이 84개월(7년) 이상의 장기 대출을 이용했다.
- 대출 기간을 길게 늘렸지만 구매자들의 월평균 납부금은 $78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차량당 평균 대출 금액 역시 1년 전 $42,744에서 $44,664로 늘어나 사상 최고치로 커져 가계의 재정 부담이 커진 상태다.

기사

[보고서 1: 중국 경제]

JP모건/IMF "중국, 내수·소비 중심 신성장 모델 전환 시급"

IMF가 부채 급증과 투자 효율성 감소에 직면한 중국 경제에 대해 기존의 투자·수출 주도형 성장 방식이 한계에 다달았으며, 내수 소비와 민간 중심의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1. 한계에 도달한 투자·수출 주도형 성장
민간 부채가 GDP의 200% 수준까지 치솟고 매년 GDP의 4%에 달하는 산업 보조금 대비 성장 효과가 떨어지면서 기존 모델이 동력을 잃었다. 미·중 갈등 및 무역 장벽 격화로 해외 시장을 통한 과잉 생산 해소도 어려운 실정이다

2. 내수 소비 중심의 경제 체질 개선
인위적인 GDP 목표 달성에서 벗어나 가계 소비 확대로 중심축을 옮겨야 한다. 지방정부는 공공·복지 지출의 85%를 담당하지만 세수는 50%에 불과해 공식 정부 예산에 잡히지 않는 편법 부채와 토지 매각에 의존해 왔다. 비효율적인 기업 보조금을 줄이고 가계 직접 지원으로 예산을 전환해야 한다.

3. 가구의 호적 제도 개혁 및 복지 확대를 통한 소비 촉진
사회안전망을 넓히고 도시 이주민의 거주 자격을 새롭게 인정하는 호적 제도를 개혁하면 소비 비중을 GDP의 3%p 끌어올릴 수 있다. 국유기업과 민간기업 간 차별을 철폐해 시장 생산성도 높여야 한다.

4.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중앙정부 재정 투입
부동산 침체에 따른 가계 자산 위축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가 GDP의 5% 수준 예산을 투입해 공사 중단 아파트를 완공하고 부실 개발사를 정리해야 한다. 인구 감소로 신규

주택 수요가 과거 대비 35~55%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연착륙에 집중해야 한다.

기사

[보고서 2: AI와 기업 경영]

Harvard Business Review: AI Is Revolutionizing Strategic Decision-Making
AI가 전략적 결정을 혁신하는 3가지 방식

새로운 AI 기술 도구들은 끊임없이 검토하고, 평가하며, 종합하는 과정을 통해 인간의 최종 판단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킨다.
기업 전략 결정의 핵심 단계인 3가지 즉, 옵션 검토, 시장 예측의 정밀화, 철저한 검증/솔루션 분야에서 AI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쟁 우위를 창출하는 방식이다.

1. 옵션 검토의 대규모화 (수천 가지 대안 검토)
기존 상황: 소수의 아이디어에 집중하며 광범위한 가능성을 놓칠수 있다.
AI 도입: 수백만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 수백 개의 후보를 하루 만에 발굴. 컨설팅 기업 McKinsey는 AI로 500개사 이상의 인수 대상을 발굴·점수화해 수개월 내 인수를 완료함.

2. 시장 예측의 정밀화 (기존 보고서에서 입체적 실시간 지도 정보화)
기존: 재무제표나 분기 보고서 등 과거의 단순화된 지표에만 의존했었다.
AI 도입: 핀테크 기업 마이뱅크(MYbank)는 위성 사진·거래 내역 등 3,000개 변수를 실시간 분석해 소상공인 5,300만 곳에 신용을 공급함. 소비재 기업 유니레버(Unilever)는 300만 대의 AI 냉동고와 날씨 데이터를 연동해 일일 수요를 실시간 예측하고 있다.

3. AI 활용으로 눈치 보기·집단사고 탈피
기존: 조직 내 위계, 정치, 눈치 보기로 인해 다각도 검증이 어려웠다.
AI 도입: '생성 에이전트'와 '비판 에이전트'를 활용한 가상 토론, 경쟁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전에 계획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 생활용품 기업 프록터앤갬블(P&G) 연구에 따르면 AI 활용 팀의 솔루션 도출 속도가 12% 빠르고 부서 간 장벽이 완화되고 있다.

기사

[오늘의 금융 지표: 미 증시 지수, 미 국채, 주요 환율]



US 30	51,624.20	+355.8	+0.69%
US 500	7,842.00	+67.9	+0.87%
Dow Jones	51,629.61	+361.71	+0.71%
S&P 500	7,841.74	+67.79	+0.87%
Nasdaq	27,714.76	+237.44	+0.86%
S&P 500 VIX	15.29	-0.23	-1.48%
Dollar Index	101.563	-0.370	-0.36%

U.S. Treasurys

	COUPON (%)	PRICE CHG	YIELD (%)	YIELD CHG
30-Year Bond	5.125	5/32	5.632	-0.033
10-Year Note	4.625	25/32	5.263	-0.049
7-Year Note	5	25/32	5.139	-0.048
5-Year Note	5	2/32	5.021	-0.039
3-Year Note	4.375	1/32	4.917	-0.043
2-Year Note	4.75	1/32	4.789	-0.034
1-Year Bill	0	0/32	4.439	-0.017
6-Month Bill	0	0/32	4.293	-0.002
3-Month Bill	0	0/32	4.133	0.012
1-Month Bill	0	0/32	3.935	-0.006

KOCHAM | 445 Park Ave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